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주목한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5월 초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이다. 36년 동안 북한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 제2차 북핵 위기와 국제사회의 압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후계 체제 구축 등이 그 어려움을 말해준다.

2016년은 김정은 정권 5년차이다. 5년차에 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과 자신감에 차 있다는 방증이다. 대내적으로 당 기능의 정상화와 연간 30만t 정도의 식량 증산,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성장이 안정감의 표시일 수 있다. 3200명 규모의 당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정치를 할 만큼 통치자금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8·25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복원이 자신감의 토대일 수 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일 유훈통치 시대를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규약을 개정해서 최고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에 추대할 수도 있다. 230여 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상당수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도 예상된다.

개혁·개방이 가미된 선민 중시의 새로운 경제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기 때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강조해 왔다. 김 제1위원장의 통일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고 평화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2016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은 그리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라는 8·25 합의 정신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북중간의 합의 정신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 직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회 후 8월 중 남북정상회담과 10월 중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인민 중시의 새로운 경제 정책과 당정군의 세대교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관계 복원은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변수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음을 예고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중간의 합의에 의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에게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논의를 요구할 것이다. 한미일이 대화보다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도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묵인하에 제7차 당대회 직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 로켓 발사는 대외적으로는 맞대응 무력시위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축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가 열리기까지 앞으로 6개월이 북한에게도, 주변국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간부들의 책임정치를 강조해 왔다. 최룡해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혁명화 교육에 들어간 듯하다. 최룡해는 김정은 식 책임정치의 희생양일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앞으로 100일 전투 또는 150일 전투를 내세우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치적 사업에 당 간부들을 독려할 것이다. 당 간부들은 최룡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룡해는 제7차 당대회 시점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는 개혁·개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 안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의 틈새를 보여준다. 개혁·개방은 강제할 수는 없어도 환경과 여건은 만들어 줄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환경과 여건 마련의 기본이다.

의료칼럼

임신한 여성의 눈 관리

김 재 봉
밝은광주안과 원장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약 10만명 정도가 라식이나 라섹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시력교정수술이 대중화되다 보니 임신중인 여성들도 라식·라섹 수술이 가능한 지 묻는 전화가 많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는 시력교정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임신을 하면 엄마의 몸이 뱃속의 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기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변하게 된다. 이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기능, 심혈관 기능 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며 임산부의 눈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임신기는 몸이 전반적으로 붓게 되는데 각막도 임신기간에는 붓고 눈물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교정 수술은 임신 전후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혈약 순환의 이상으로 망막혈관계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당뇨망막증에 걸릴 수 있다. 당뇨망막증은 망막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겨 시력을 왜곡시키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한 병이다. 임신 첫 3개월 내에는 병원을 찾아 망막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신기간에는 당뇨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3개월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당뇨망막증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한 임신 중에는 렌즈를 착용하면 임신 전에 비해 심한 이물감을 느끼고, 눈에 기름이 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임신기간에는 안경을 착용해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뒤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렌즈의 사용은 삼가고, 임신기간 중 일시적인 시력저하가 생기기도 하지만 출산 뒤에 정상화가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중에는 몸의 수분과 호르몬 등의 변화로 인해 각막의 굴절력이 변할 수 있다. 즉 임신 전에는 시력이 좋았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안경을 끼어야 잘 보인다든지 잘 맞던 안경이 임신하고 나서 잘 맞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안경도수의 변화는 수 주 동안의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시력저하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거나 직업상 좋은 시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경을 새로 맞추지 않고 기다렸다가 산후조리가 끝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안경을 맞춰도 된다.

안약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신 중에 약의 복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요즘 산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눈에 점안하는 안약의 경우에는 복용하거나 주사에 의해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안전해 짧은 기간 저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자 임의로 장기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산모의 건강이 태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임산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눈 관리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출산 뒤에도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엄마는 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아직 안과 검진을 받아 보지 않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 고

아프리카 물소떼의 리더와 '떴다방'

이 명 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언젠가 TV에서 아프리카 물소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지역에서 수만 마리의 물소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乾期)가 되면 물과 초원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한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물소떼가 이동하던 중 강을 만나 건너는 장면이었다.

평원을 이동하던 물소떼가 언덕 밑의 강을 만나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장면이 나왔다. 모두 그냥 강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뛰어들 강에 포식자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악어다. 악어는 물에 뛰어드는 물소를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악어에게 희생되는 물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압권인 장면은 이처럼 물소들이 강으로 뛰어 들기를 주저하고 있을때 리더로 보이는 한 마리의 물소가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그러자 나머지 물소들도 이내 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내 강은 물소떼로 뒤덮였다.

그러면 이런 물소떼의 리더는 누가될까? 답은 가장 힘이 센 물소도 아니고 가장 빨리 달리는 물소도 아니다. 멀리 물과 초원이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곳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능력을 가진 물소라는 것이다.

우리도 살면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을 따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는 뭔가 나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행태를 따라하거나 권유하는 대로 투자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군집행태'(herd behavior) 또는 쏠림현상이라고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정보에 근거한 군집행태'(information based herding)가 발생한다고 한다.

예컨대 부동산시장에서 일명 '떴다방'이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 '이러 저러한' 투자여건이 형성되어 향후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형성될 것이니 마음 놓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열변을 토한다. 그렇다면 '떴다방'의 권유대로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주식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이러 저러한' 정보가 있으니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까?

앞서 아프리카 물소떼의 리더는 물을 찾지 못하면 나머지 물소와 같이 죽는 공생관계가 있지만 과연 부동산시장의 '떴다방'도 이런 관계일까? 그러면 폭탄 돌리기, 막차, 상투 이런 얘기는 왜 나올까?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자금 조달금리가 다르고 손실부담 여력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혹시 현재의 조달금리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변수가 많이 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금융·경제환경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G1)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중국(G2)의 경제 성장은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G1, G2의 경제환경에 따라 신흥시장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행한 달러가 신흥 시장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원재료인 원유, 원자재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원자재 수출국인 일부 신흥시장국의 어려움이 커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국가인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 투자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개구리를 끓는 냄비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펄쩍 뛰어나와 살 수 있지만 냄비속 차가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개구리는 도망가지 않고 결국에는 죽고 만다. 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예로 들고 있는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이야기이다.

진화론의 다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변화가 많은 요즈음 진정 투자의 책임은 자신한테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두고 항상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社 說

비준 돌입 한중 FTA…농수산 피해 대책 있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부터 가동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비준 동의를 향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제 한중 FTA 혜택을 골고루 누리려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도 틈새를 노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 경제는 한중 FTA로 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한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 4000만 달러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한중 FTA 농업 분야 시나리오 분석(2013년)'에 따르면 15년 동안 누적 피해액이 1조41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FTA로 관세가 경감되는 제조업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농업은 또다시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보완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출 증가로 늘어나는 제조업계의 이익을 할당해 농수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무역 이득 공유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거스른다는 반발도 있지만, FTA의 이익을 나눠 손실을 메우는 것 또한 설득력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규정이 미흡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황사나 미세먼지 대책도 세심하게 의논돼야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 완화,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의 뒷받침과 함께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리 쌀과 김치, 삼계탕의 중국 수출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면 FTA 파고를 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수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한편 자구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슬기가 절실하다.

지역 건설사 왜 안방서도 대기업에 밀리나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광주 지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고 있다. 최근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수주 경쟁 구도도 마찬가지였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대림사업·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 프리미엄 사업단과 퍼스트 사업단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안정성 때문일 것이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얼마 전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인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 빛고을드림사업단이 선정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저렴한 시공비용과 견실한 능력으로 전국에서 4만6000가구의 아파트 시공권을 따낸 사례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사들이 유독 연고 지역에서조차 고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역민들의 맹목적인 브랜드 선호를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건설사들은 전국 단위의 개발 사업에서 대형 건설업체들과 힘겨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이 안방에서조차 외면받는다는 건 자신들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소홀한 탓이 있는 건 아닐까. 따라서 혹시 지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지역 건설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자신들의 경쟁력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문구의 모험

광주 동명동 아트숍 '발해'에서 마음에 쏙 드는 필기구를 발견했다. '블랙윙 602'이라는 연필이다. '분노의 포도'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즐겨 썼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스르르 밀리는 게 정말 편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작가로 활동하는 내내 완벽한 연필을 찾아 헤맸는데 마지막 선택이 바로 '블랙윙 602'었다. 캐릭터 '벅스 버니'를 만든 척 존스는 자기 그림에 대해 '블랙윙으로 만들어 낸, 흩날리는 드로잉'이라고 말했다.

'블랙윙 602'는 에버하드 파버가 1934년 출시한 제품이다. 특유의 부드러운 심은 흑연에 왁스를 더하고 점토를 섞은 결과물이었다. 당시 광고 문안은 '손의 힘을 절반만 주고도 글쓰기 속도는 두 배로 늘릴 수 있다'였다.

아쉽게도 '블랙윙 602'는 1998년 생산이 중단됐지만 그 명성을 되살리는 업체가 등장했다. 블랙윙 등록상표 기한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시더 프로덕츠가 원조를 기리는 '팔로미노 블랙윙 602'를 출시한 것이다. 블랙윙 골수 팬들은 불평을 쏟아냈지만 그 덕에 지금 우리가 '블랙윙 602'를 만나고 있다.

마음에 맞는 문구류를 찾았을 때의 희열을 아는 사람은 안다. 외국 여행 땐 문구점을 꼭 찾거나, 문구점에 한번 발을 들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런 부류다. 작품 배경이 문구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내 취향이 아닌, 5부작 드라마를 버티며 본 적도 있다.

기자가 된 후엔 나에게 맞는 만년필 찾기가 시작됐다. 출발은 가볍고 저렴한 파커 만년필이었다. 선배들이 쓰던 라미 만년필을 거쳐 독일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펠리칸 만년필에 빠졌다. 워터맨도 한동안 사용했다.

문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안 사고는 못 배길 책이 나왔다. 문구류 품평회 '런던 문구 클럽' 창설자이자 '지루함 컨퍼런스' 기획자인 제임스 워드의 '문구의 모험-당신이 사랑한 문구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어크로스)다. 지우개, 연필, 볼펜, 클립, 수정액 등 문구에 대해 궁금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읽다 보면 책에 나오는 문구들을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내 책상 위에 내 맘에 딱 맞는 문구류가 좌르르 놓여 있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